Life p/11



식·음료 '체험마케팅' 확산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제3063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22



스마트폰 5인치시대 경쟁

클래스가 다른 한국 '무대가 좁다'

아시안게임 일주일 결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은 안방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연일 클래스가 다른 경기력을 보이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한 선수단은 대회 개막 1주일인 25일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태권도·양궁·배드민턴 등 금밭 경기가 아직 남아 있어 3위 일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격차 벌어질 듯

'역대 최고 기록'. 한국 펜싱은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중국이 세운 대회 최다 금메달 기록 7개를 갈아치웠다. 지난 24일 치른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한 한국은 금메달 8개·은메달 5개·동메달 2개의 기록으로 아시아 최강임을 재확인했다.

한국 펜싱은 2010 광저우 대회에 이어 대회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경사도 누렸다. 그간 중국과 아시아 최강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했던 한국은 어웨이 경기에 이어 홈경기에서도 중국을 제압하며 부동의 1위를 확고히 했다.

특히 12년만에 정상에 오른 남자 사브르 단체팀과 대회 5연패를 달성한 여자 플뢰레 단체팀의 성적이 단연 돋보인다.

구본길(25)·김정환(31)·오은석(31·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원우영(32·서울메트로)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이란을 45-26으로 물리쳤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다시 밟은 정상의 자리였다. 세계랭킹 1,2위를 달리고 있는 구본길과 김정환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미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표팀이었다.

여자 플뢰레 단체 결승에서는 남현희(33)·오하나(29·이상 성남시청)·전희숙(30·서울시청)·김미나(27·인천 중구청)가 나서 중국을 32-27로 꺾고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플뢰레 단체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5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며 아시아 최강의 위용을 과시했다. 아시아에서는 더이상 적수가 없음을 재확인한 순간이다.

한국 사격대표팀은 속사 권총에 걸린 2개의 금메달과 여자 50m 소총 복사 단체전 금메달까지 휩쓸었다.

특히 김준홍(24·KB국민은행)은 남자 25m 속사권총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장대규(38·KB국민은행)·송종호(24·상무)와 함께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4관왕을 노렸던 김준홍은 25일 남자 25m 스탠다드 권총 개인전과 장대규(38·KB국민은행)·강민수(22·부산시청)와 함께 나간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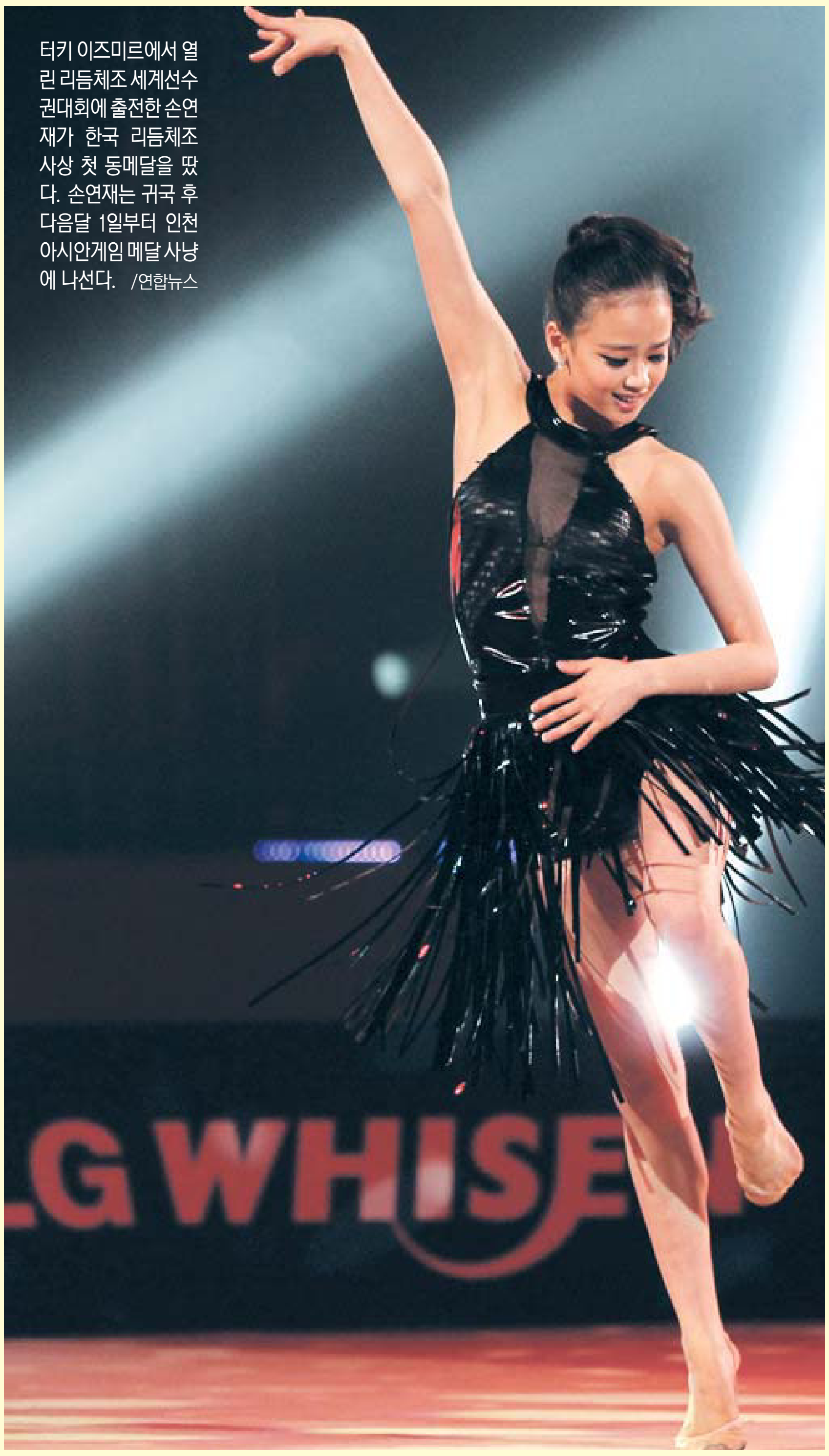
인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김청용(17·흥덕고)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에게 대회 첫 2관왕을 선물했다. 김청용은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우상이었던 진종오(35·KT)·이대명(26·KB국민은행)과 함께 출전,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개인전에서도 중국의 팡웨이를 제압하고 2관왕을 차지했다. 사격 시작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김청용은 제2의 진종오를 꿈꾸며 앞으로 세계무대를 휘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야구 대표팀은 조별예선에서 난적으로 평가되던 대만마저 10-0 콜드게임으로 제압하며 금빛 방망이를 휘둘렀다. 결승에서 일본이나 대만을 만날 가능성이 큰 대표팀에게 적수는 없어 보인다. 일본 대표팀은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어서 프로 선수 대신 실업야구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일본을 만나더라도 싱겁게 경기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는 아시안게임에 앞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동메달을 땄다. 이 대회에는 아시안게임 라이벌이자 유일한 적수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가 함께 출전했으나 손연재보다 한 수 아래의 평가를 받았다. 손연재가 후프 종목에서 동메달을 딸 때 덩썬웨는 5위에 그쳤고 볼 종목에서는 예선 43위로 결선 무대를 밟지도 못했다. 손연재는 이 종목에서 결선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현재 개인종합 중간 합계에서도 덩썬웨는 14위에 올라 손연재와 격차가 벌어졌다. 손연재는 두 계단 상승한 4위에 랭크돼 있다.

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귀국해 아시안게임 메달 사냥에 나설 손연재는 다음달 1일부터 금빛 리듬을 탈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손연재가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동메달을 땄다. 손연재는 귀국 후 다음달 1일부터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① 24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대표팀이 태극기를 들고 승리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24일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 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왼쪽부터)김준홍, 장대규, 송종호가 시상식에서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역사 쓴 펜싱, 명중 사격 등 종합2위 쾌속 행진




25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남자 16강전 한국-홍콩 경기에서 두번째 골을 성공한 박주호(8)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B조 예선 홍콩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7회말 12-0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축구·야구, 금메달 레이스 '청신호'

홍콩 상대로 승전보…축구 8강·야구 준결승 진출

한국 축구와 야구가 홍콩을 상대로 승전보를 이어갔다.

25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16강 경기에서 이광종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홍콩을 상대로 3-0으로 승리하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홍콩의 극단적인 수비 전략으로 인해 전반전 내내 골을 내지 못했다. 이재성·임창우·손준호·김영우·이용재 등이 여러 차례 슛을 시도했으나 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전반 34분 이재성의 스루패스를 김승대가 골 지역에서 잡아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붙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은 골키퍼에 몸에 막혔다. 전반 35분, 39분 장현수, 전반 44분 김승대의 슈팅도 골문을 멀찍이 빗겨나갔다.

후반에도 홍콩은 페널티 지역까지 수비 전열을 끌어내린 채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나 후반 14분 이용재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팽팽했던 승부는 한국의 우세로 기울었다. 후반 32분 박주호가 대포알 슈팅으로 홍콩의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고 후반 추가시간에 김진수가 세 번째 골을 넣으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8강전에서 한국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과 맞붙게 됐다. 일본과의 경기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 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진다.

이에 앞서 오후 6시30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예선리그 3차전에서도 한국은 홍콩과 경기를 펼쳤다. 12-0으로 7회 콜드게임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 대량득점에 실패해 예상보다 긴 경기를 펼쳤다. 특히 최고 구속 시속 120㎞를 넘지 않고 100㎞에도 못 미치는 공도 자주 던지는 홍콩의 '느린 공 투수들'을 만나 고전했다.

한국은 1회초 선두타자 민병헌의 3루타에 이은 손아섭의 1루 땅볼로 선취점을 얻었다. 이후 2회부터 6회까지 꾸준히 점수를 냈다. 7회초 2사 만루에서 황재균의 밀어내기 볼넷과 이재원의 내야안타, 오재원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3점을 얻어 콜드게임 조건을 충족시켰다.

투수진은 이날도 호투해 이번 대회 20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홍성무가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봉중근·임창용·유원상이 1이닝씩 던졌다.

태국, 대만, 홍콩을 콜드게임으로 꺾으며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한 한국은 오는 27일 A조 2위 중국과 준결승전을 펼친다. 준결승전을 무사히 마치면 대만과 일본의 준결승전 승자와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양학선 도마 2연패 실패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25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양학선은 1, 2차 시도 평균 15.200점을 받아 홍콩의 섹와이훙(15.216점)을 꺾지 못하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뒤 양학선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1등을 한 뒤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2등의 씁쓸함을 알았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병호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79	42	34
2	일본	28	36	32
3	한국	28	33	31
4	카자흐스탄	6	8	16
5	북한	6	7	9

<25일 현재>

박태환 銀 추가 'AG 최다 메달 타이'

자유형 100m 2위 "남은 경기서도 메달 딸 것"

박태환(인천시청·사진)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 통산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이다.

25일 인천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자유형 100m 결승에서 박태환은 48초75를 기록해 닝쩌타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닝쩌타오는 47초70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동메달은 일본의 시오우라 신리(48초85)에게 돌아갔다.



이날 결승에서 박태환은 4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0.65초의 출발 반응 속도로 물속에 뛰어든 박태환은 잠영 구간에서 뒤처지면서 첫 50m 구간을 4위로 돌았다. 이후 남은 50m 구간에서 스퍼트를 올리면서 중국의 위허신과 시오우라를 차례로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은 2연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은메달로 박태환은 한국 선수 중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을 가진 사격의 박병택(19개, 금5·은8·동6)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경기를 마친 뒤 박태환은 "정말 잘 해도 후회는 남으니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이번 대회 처음으로 경기하면서 몸이 괜찮았고 시즌 최고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예선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태환은 26일 자유형 1500m와 혼계영 400m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는 "남은 1500m와 단체전(혼계영 400m)에서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더 가져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병호기자



하나된 아시아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해 25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하나된 아시아'를 표현하는 포토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대표 4개국의 전통의상과 태권도, 축구, 야구, 농구 등 아시안게임 대표 4개 종목을 선보이며 다채롭게 구성했다. /유순호기자


오재원


24일 열린 대만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 '골든 위크엔드' 열린다

야구 결승 이어 '전통 메달밭' 양궁·레슬링·배드민턴 등 주말 대량 금메달 기대

태극전사들이 주말 인천에서 금밭을 일군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중반으로 돌입한 가운데 27~28일에는 국민 스포츠인 야구 준결승과 결승전을 비롯해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양궁과 레슬링, 배드민턴 등이 열린다. 5회 연속 종합 2위와 금메달 9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은 화끈한 메달 레이스를 벌이며 이번 주말을 '골든 위크엔드'로 장식하려 한다.

국민들의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야구 대표팀은 27일 중국과 준결승을 치를 예정이다. 대회 2연패를 향한 첫 고비인 대만전을 콜드게임 승으로 넘긴 한국은 B조 1위를 확정했고, A조 2위가 유력한 중국과 맞붙는다.

준결승 마운드는 이재학(24·NC 다이노스)과 이태양(24·한화 이글스) 두 '영건'이 책임진다. 류중일 감독은 선발 요원 두 명을 연속 등판시켜 긴 이닝을 소화하게 하는 작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류 감독의 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때 사용해 효과를 본 전략이다.

중국 타자들이 낯선 유형의 투수에 부담을 느낀다는 전력 분석 결과에 따라 사이드암인 이재학을 먼저 내보낸 후 우완 정통파인 이태양을 연이어 투입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도 한국의 사이드암 김병현을 맞아 8타자 연속 삼진을 포함해 6이닝 무득점으로 고전했다.

태국과 대만을 상대로 연속해서 콜드게임 승을 거둘 정도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타자들은 이날 경기에서도 맹공을 퍼부으며 결승전까지 타격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승전은 28일 오후 6시30분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다.

세계최강 한국 양궁은 27일(컴파운드 남녀 단체·개인)과 28일(리커브 남녀 단체·개인) 각각 4개씩 걸린 금메달을 싹쓸이한다는 목표로 경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컴파운드가 정식종목으로 편입된 데다가 리커브 단체전에 세트제가 도입돼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단체전 세트제에서는 화살 총점이 아닌 세트 승점으로 승부를 가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양궁 여자 개인 컴파운드에 출전하는 최보민. /연합뉴스


남자 배드민턴 복식에 출전하는 유연성(왼쪽)과 이용대. /연합뉴스

한국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리커브에서는 아성을 지키고 새롭게 도입된 컴파운드의 최강자 자리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시안게임 양궁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등이 세계적인 강호라 올림픽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남자부 리커브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인전 챔피언 오진혁(현대제철)이 선봉에 나선다. 2011년 토리노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김우진(청주시청), 지난해 안탈리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자 이승윤(코오롱)도 가세한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구본찬(안동대)도 우승 출사표를 던졌다.

리커브 여자부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체 금메달, 2009년 울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단체 2관왕을 차지한 주현정(현대모비스)이 나선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챔피언 장혜진(LH), 2011년 런던 프레올림픽 개인, 단체 우승자 정다소미(현대백화점), 2005년 마드리드, 2007년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자 이특영(광주광역시청)도 출전한다.

컴파운드는 올림픽, 전국체전 종목이 아니라서 소외된 면이 있었고 국내에 정착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활은 다르지만 양궁 강국의 기본기를 지니고 성장한 컴파운드 선수들은 세계무대에서 금세 두각을 드러냈다. 남자부에는 최용희, 민리홍(이상 현대제철), 김종호, 양영호(이상 중원대)가 출전한다. 여자 컴파운드에는 최보민(청주시청), 석지현(현대모비스), 윤소정(울산남구청), 김윤희(하이트진로)가 나선다.

3수 끝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대(26·삼성전기)는 남자 단체전 우승의 기쁨을 잊은 채 27일 남자복식에 출전한다. 유연성과 짝을 이룬 이용대는 23일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2번째 주자로 나서 중국의 장난-쉬천을 2-0으로 완파했다.

이용대는 단체전 우승 후 "여러 대회에서 중국에 지면서 2위를 한 적이 많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인천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는데, 우승하게 돼 더 뜻깊다"며 "단체전은 끝났으니 오늘의 기쁨은 오늘만 누리겠다. 잘 준비해 개인전의 목표도 이루겠다"고 2관왕 등극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28년 만에 '노 골드'의 수모를 겪은 한국 레슬링은 인천에서 부활을 다짐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730일 동안 극한의 체력 훈련을 하며 전력을 끌어올렸다.

김현우·류한수(삼성생명), 정지현(울산남구청) 등이 포진한 그레코로만형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자유형에서도 금메달을 노린다. 27일 남자 자유형 57㎏급에 출전하는 윤준식(삼성생명)은 급성장한 기량으로 우승 전망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 밀렸던 여자 레슬링에서도 48㎏급의 이유미(칠곡군청)가 이날 우승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환희와 감동의 순간


①

4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 마침내 인천에서 피어났다. 때로는 환희와 감동으로, 누군가에게는 절망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노력만큼은 결과와 상관 없이 모두 값지다. 중반으로 접어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열전의 현장을 돌아봤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②


③



④


⑤

① 물 위를 걷는 여인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여자 프리콤비네이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팀의 물 위를 걷는 듯한 탁월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압도했다.

② 인간 돌고래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여자 단체 자유종목에 출전한 일본팀 선수들이 물위로 솟아 오른 돌고래처럼 시원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③ 바로 이 맛이야~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지연이 금메달을 확정 짓고 환호하고 있다.

④ 대인배의 여유 수영 남자 400m 결승에서 3위에 그친 한국의 박태환이 1위를 한 중국의 쑨양을 축하하고 있다.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장에서 경기 결과를 떠나 마치 호스트의 여유로움을 전하듯 다른 선수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쑨양은 자신의 영웅인 박태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워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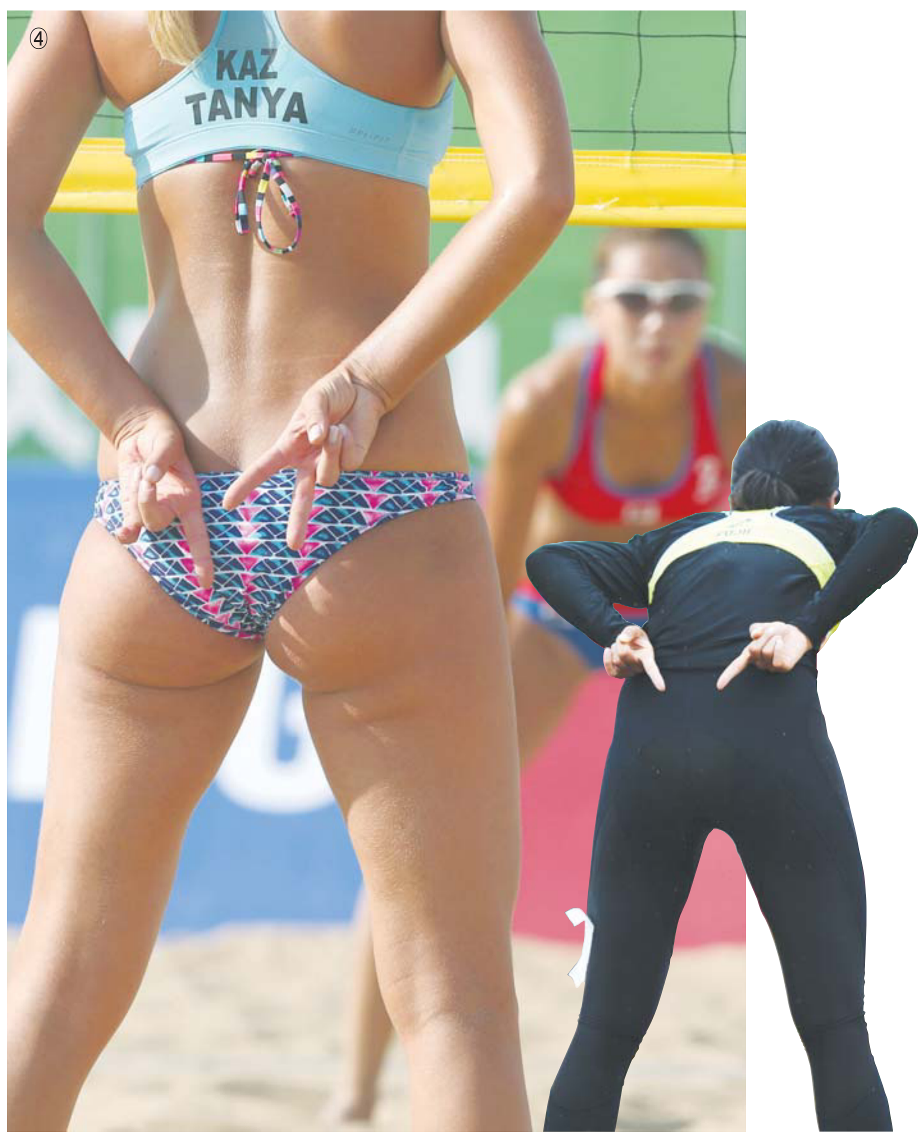
⑤ 허준의 침보다 날카로운 허준의 칼 펜싱 남자 플뢰레 결승에서 허준(왼쪽)이 세계 최강 마젠페이(중국)에 맞서 체격 조건의 열세에도 빠른 발과 정확한 공격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체조 여자예선에서 한국의 정희연이 힘껏 날아오르며 평균대 연기를 하고 있다.







① 누가 진짜 양학선일까요 남자 기계체조 단체전 경기에서 양학선이 철봉연기를 펼치고 있다.
② 무협영화 능가하는 킥 세팍타크로 더블 남자 결승에서 한국의 김영만이 날카로운 킥을 날리고 있다.
③ 태극마크 가슴에만 다는 거 아니죠 사격 여자 50m 소총 복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정미라, 음빛나, 나윤경(왼쪽부터)이 손등에 그려진 태극기를 보이고 있다.
④ 온도차 20일 열린 비치발리볼 여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기에서는 서 있기만 해도 선수들의 몸에 땀이 맺혔다. 불과 나흘 뒤 열린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는 검은 내의와 같은 경기복이 등장했다.
⑤ 진품명품 감별단 유도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방귀만(왼쪽부터), 김재범, 이규원, 최광현, 김성민이 금메달 획득이 믿기지 않는 듯 연신 메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비슷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슈퍼맨…' '비정상회담' 원조예능 뛰어넘다

신선한 소재 자체만으로도 승패가 갈리는 예능가에서 최근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은 마치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다.

지난해 MBC '아빠 어디가'에서 시작된 육아 관찰 예능은 이제 방송사 필수 프로그램이 됐다. 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SBS '오 마이 베이비'는 아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원조 '아빠 어디가'와 동시간대 편성돼 논란을 빚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14일 시청률 16.9%(닐슨코리아 집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베끼거나 소재를 빌려 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송 초기 '미녀들의 수다'를 따라했다는 의혹을 샀던 JTBC '비정상회담'은 '신(新) 외국인 예능 열풍'을 일으켰고 이는 곧 후발 프로그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MBC가 지난 추석 연휴에 파일럿 형식으로 선보였던 '헬로 이방인'은 7.4%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다음 달부터 목요일 오후 11시마다 방송될 예정이다. E채널은 지난 23일 개그맨 조세호를 메인 MC로 내세운 '용감한 랭킹'을 방송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이 나온다는 점이 '비정상회담'과 유사하나 진행 방식은 다르다. '헬로 이방인'은 젊은 외국인 남녀 11명을 게스트 하우스로 초대해 1박 2일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일을 담은 리얼리티 쇼다. '용감한 랭킹'은 미국인 데이브와 독일인 다리오가 한국 생활을 하며 느낀 것들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파헤치고 탐구하는 랭킹 쇼다. 이처럼 소재만 유사하고 진행 방식은 다르면 아류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녀들의 수다'의 조연출을 했던 고민구 CJ E&M PD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tvN '오늘부터 출근' 제작발표회에서 고 PD는 "KBS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녀들의 수다' 조연출을 6개월 정도 했다. 최근 '비정상회담'을 봤을 때 표절이란 느낌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PD는 지난해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된 '나인투식스(9 to 6)'와 '오늘부터 출근'이 연예인들의 직장생활 체험이라는 소재를 다룬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지적에도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그는 "소재는 한정돼 있는데 채널과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일정한 소재 안에서 신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그쪽('나인투식스')이 시트콤에 가깝다면 '오늘부터 출근'은 관찰 예능에 가깝다. 방송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표절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고 PD의 설명대로 '나인투식스'는 출연진들이 상사부터 신입사원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토대로 진행된다. '오늘부터 출근'의 출연진은 실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서 일반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았다. 소재만 비슷할 뿐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다.

고 PD의 말처럼 진행 방식만 다르다면 후발 프로그램들은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원조 프로그램의 인기가 없었다면 후발 프로그램은 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후발 프로그램들이 형식을 달리하고 새로운 구성을 시도해도 아류 딱지를 떼어낼 수 없는 이유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JYJ 기자회견에만 3500명

3년 만의 태국 공연 앞두고 열기 고조

그룹 JYJ가 콘서트 하루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 3500여 명의 팬이 몰려들었다.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4일 태국 센트럴 월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3500여 명의 팬이 몰렸다. 무대 앞 광장뿐 아니라 무대 뒤 2·3층 공간까지 가득 찬 팬의 함성에 기자회견 마이크 소리가 묻힐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저녁에 열린 기자회견을 보기 위해 그들은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장사진을 쳤다. JYJ는 "JYJ로서 3년 만에 태국을 방문했다.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 줘서 행복하다"고 화답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무대에 오른 소감을 묻는 질문에 JYJ는 "아시아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서서 뜻 깊었다"고 말했다. 또 운동 경기에 참여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냐고 묻자 김준수는 한국의 대들보인 양궁, 김재중은 펜싱이라고 답했다. 박유천은 김준수의 매니저로 참가하겠다고 말해 큰 웃음을 안겼다.

"태국 여성의 어떤 점이 좋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JYJ는 "태국 팬들의 눈이 예쁘다. 너무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JYJ는 지난달 서울에서 시작한 아시아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을 진행 중이다. 홍콩,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중국 청두, 대만 타이베이, 중국 상하이에 이어 25일 태국 방콕 무앙 통 타니 챌린저홀에서 공연했다. /유순호기자 suno@



걸그룹 출신 세 배우 연기 대결

강은혜·조민아·김보미 영화 '바리새인' 출연

걸그룹 출신의 배우들이 과감한 노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바리새인'에서 연기 대결을 벌였다.

달샤벳 출신의 강은혜(비키), 쥬얼리 출신 조민아, 밀크 출신의 김보미는 25일 개봉한 치정 로맨스 '바리새인'에 출연해 숨겨온 끼를 발산했다. 이 영화는 어린 시절 성폭행 후유증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은지(비키)와 성적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온 승기(예학영)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다룬다.

달샤벳 리더 출신인 강은혜는 JTBC 기상캐스터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오디션을 통해 이번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돼 연기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는 걸그룹 최초로 전라 노출을 감행하며 배우로의 변신에 열정을 쏟았다.

조민아는 승기의 첫사랑 역을 맡아 열연했다. 그는 쥬얼리 탈퇴 후 뮤지컬 '렌트' '김종욱찾기' '사랑은 비를 타고', 드라마 '전우치' '친애하는 당신에게' '두근두근 달콤' 등을 통해 연기자로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다.

뮤직비디오와 연극을 오가며 활동해온 김보미는 이번 영화를 통해 스크린으로 영역을 넓혔다. /유순호기자



강은혜, 조민아, 김보미(왼쪽부터).



가수 에일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컴백 쇼케이스에서 가창력을 뽐내고 있다. /뉴시스

"10kg 줄여도 가창력 여전"

에일리 미니 3집 '매거진'… 타이틀곡 '손대지마' 파워 보컬 뽐내

가수 에일리의 이름 앞에는 '차세대 디바'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비욘세'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많은 수식어만큼 다채로운 매력과 재능을 지닌 에일리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세 번째 미니 앨범 '매거진'에 담았다.

에일리는 25일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미니 3집 '매거진' 쇼케이스를 열고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파워풀한 댄스까지 한 권의 잡지 같은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컴백에 앞서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그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10kg 정도 감량했다"며 "식단 조절로 살을 뺐는데 하루에 총 500㎉정도 먹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앨범을 준비하면서 살을 빼고 동시에 노래 연습을 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며 "매일 쓰러질 것 같았지만 쓰러지진 않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이 가창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작곡가 언니·오빠들이 '목소리가 바뀐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고 말했다. 이날 에일리는 타이틀 곡 '손대지마'를 비롯해 '문득병' '미치지 않고서야' 등의 수록곡 무대를 통해 변함없는 가창력을 뽐냈다.

'손대지마'는 브릿팝 스타일의 록 장르로 반복되는 피아노 루프와 드럼 비트 위로 에일리의 시원한 고음이 인상적인 노래다.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자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손대지마' 가사에 대해 에일리는 "소름끼치니까 내게 손대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별한 여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에서 에일리는 성숙해진 외모와 함께 음악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다. '문득병'은 에일리가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일렉기타 루프를 중심으로한 미디움템포의 팝발라드다.

에일리는 "'매거진'에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이 노래를 쓴 지는 오래됐는데 기회가 닿아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에일리는 이날 오후 8시에 팬 250명을 초대해 특별 팬 쇼케이스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샤이니 오리콘 차트 이틀연속 1위

일본 정규 3집 '아임 유어 보이' 발표… 투어 시작

그룹 샤이니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샤이니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시된 샤이니의 일본 정규 3집 '아임 유어 보이'는 23·24일 이틀 연속 일본 최대 음반 집계 사이트 오리콘의 앨범 일간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다운타운 베이비'를 비롯해 '보이스미트 유' '럭키 스타' 등 일본 싱글 히트곡과 국내에서 발매한 '에브리 바디' '드림 걸'의 일본어 버전, 신곡 '피카소' '365' '퍼펙트 10' 등 다양한 장르의 12곡이 수록돼 있다.

또 샤이니는 지난 24일 일본 롯본기힐즈 아리나에서 '아임 유어 보이' 발매 기념 이벤트를 열고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샤이니는 앨범 소개와 멤버별 토크, 신곡을 선보였다.



샤이니 일본 정규 3집 '아임 유어 보이'. /SM 엔터테인먼트

샤이니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일본 투어 '샤이니 월드 2014 아임 유어 보이'를 개최, 도쿄·오사카·고베·나고야·후쿠오카 등 20개 도시에서 총 30회에 걸쳐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첫 공연은 치바에서 열린다. /김지민기자



샤이니 일본 정규 3집 '아임 유어 보이'가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기록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중한 사람과 손잡고 추억 쌓으세요"

관광공사, '관광주간' 맞아 여행코스 추천



다음 달 5일까지 '가을 관광주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관광주간 홈페이지(fall.visitkorea.or.kr)에 테마가 있는 추천 여행코스 23선을 추천했다. 그중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찾으면 좋을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부부가 함께하는 '가을 낭만여행'

먼저 태안과 예산의 2박 3일 코스에서는 바다와 호수, 숲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태안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을날을 즐길 수 있으며 국내 유일의 붉은 소나무 안면송의 집단 자생지인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의 산책도 가능하다. 또 서해안 최고의 일몰을 자랑하는 꽃지해변과 천리포수목원, 예산의 예당호를 따라가는 시골길은 올 가을 최고의 낭만을 선물한다.

경북에는 ▲군위 ▲안동 ▲영양 ▲청송 등 문학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다. 돌담이 아름다운 군위에서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와 '몽실언니' 등 많은 작품을 남긴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의 생가를 직접 볼 수 있다. 안동에서는 전통마을인 안동군자마을과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행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도산서원에서 옛 선조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영양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주실마을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문열이 태어난 두들마을이 있고 청송에서는 대하소설 '객주'의 배경이 되는 객주문학관 탐방이 관광객을 기다린다.

◆아이들과 추억 만드는 '가족 체험여행'

아이들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충북 음성에서 괴산을 지나 충주로 이어지는 코스가 적당하다. 음성에서는 철박물관과 동요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괴산에서는 둔율올갱이마을에서의 다슬기 잡기와 괴산한지박물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충주로 이동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백두대간 고갯길인 하늘재를 만난다. '왕의 온천'이라고 불리는 수안보 온천에서는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삼척을 지나 태백에 이르는 코스는 초당두부마을에서 시작한다. 바닷물을 간수로 쓰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두부를 맛보고 강릉커피축제를 즐길 수 있다. 삼척에서는 해양레일바이크 체험과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의 투명 카누 바다 래프팅 등이 색다른 재미를 주며 모노레일을 따라 자연유산인 대금굴을 탐방하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태백에서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과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이 가을의 추억을 안겨준다.



◆친구와 떠나는 '가을 추억여행'

전라도에는 바다를 품은 해안에 명소들이 많아 친구와 여행이 어울린다. 2012년 여수엑스포해양공원을 산책하고 해양레일바이크를 즐긴 후 노래로 유명한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강진에서는 선생이 머물렀던 다산초당과 백련사로 이어지는 옛길을 산책할 수 있으며 해남에선 한반도 육지의 끝에 있는 땅끝전망대를 구경할 수 있다. 물론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치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하는 10월, 부산은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다. 유명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돌아보는 여행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도 준비된다. 사철 푸른 소나무가 무성한 동백섬의 등대전망대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소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달맞이길도 부산의 명소 중 하나다. 또 거제에서는 2000년대 초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바람의 언덕에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 유명한 통영 장사도해상공원의 풍경도 올 가을 최고의 추억이 될 것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리조트에서 만나는 가을!

본격적인 가을 맞이 이벤트 풍성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전국 리조트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올 가을 리조트로 즐거운 나들이를 떠나보자.

먼저 대명리조트가 가을맞이 이벤트를 마련했다. 10월 31일까지 비발디파크에서는 글램핑 체험과 BBQ 파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별빛 글램핑 패키지'가 준비된다. 인디안 글램핑과 내추럴 글램핑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야외활동을 즐기고픈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양평리조트는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힐링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별헤는 밤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는 리조트 키즈파크 내 짚라인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짚라인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11월 27일까지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곤지암 프리미엄 가을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프라임 객실에서의 주중 1박과 곤지암에서 가을 산책을 즐기고 생태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화담숲 입장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미타임(ME-TIME) 객실을 이용하면 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제주·여수, 그리고 63스퀘어에서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10월 5일까지 할인 프로모션과 '탐험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제주에서는 입장권이 할인되며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63스퀘어에서는 BIG3 등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출력해 매표소에 제시하면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쿠아플라넷과 63씨월드를 방문하는 모든 초등학생 관람객은 탐험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가을 밤 낭만에 취하다

명품호텔, 와인·맥주 등 이벤트 선봬

도심 속 특급호텔들이 화려한 가을 밤의 낭만에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와인·맥주 이벤트를 선보인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11월 30일까지 뉴욕 스타일의 음식과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뉴욕 원더 아워(New York Wonder hour)'를 실시한다. 미국육류수출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벤트로 곡물사료로 키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서 생산된 다양한 와인을 만끽할 수 있다. 또 호텔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와인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는 모모 바에서 11월 30일까지 '에일 비어 피스트(Ale Beer Feast)'를 진행한다. 간단한 스낵 안주가 포함된 '퀸즈 에일(Queen's Ale)' 세트를 주문하면 맥스(max)생맥주 1잔이 무료로 주어지며 모모 그릴 치킨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모모 바의 추천 와인을 구입 후 안주류를 주문하면 코키지(Corkage) 없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코키지 프리 이벤트'도 이어진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다음 달 3일 애스톤 하우스에서 100여 종의 와인을 만날 수 있는 '2014 애스톤 와인&다인(Aston WINE&DINE)'을 개최한다. 다양한 메뉴가 뷔페로 준비되며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라이브 공연도 펼쳐진다. 또 10월 11일과 12일에는 비어 페어가, 18일과 19일에는 와인 페어가 열린다. /황재용기자

‘겨울 상품’ 찾는 고객 많아져

난방용품 매출 급증… 편의점도 따뜻한 간식

일교차가 커지면서 겨울상품을 찾는 수요가 빨라졌다. 난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한편, 편의점은 일찌감치 찐빵을 팔기 시작했다.

온라인마켓에서는 난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5일 G마켓에 따르면 9월 들어(9월 1일~9월 23일)전기매트 판매가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전기히터 판매도 33% 늘어났다. 근적외선 히터와 미니히터의 판매가 각각 242%, 76%로 껑충 뛰었다. 문풍지(70%)·실내용 난방텐트(594%) 등 전기없이 집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상품도 인기다.



같은 기간 옥션에서 손난로·핫팩 등 휴대용 난방용품판매량은 1335% 증가했다.

G마켓 소형가전팀 손형술 팀장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다 난방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겨울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캠핑이나 단풍놀이 시즌이 되면서 야외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난방용품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행사도 진행 중이다. 위메프는 전기매트·온수매트·전기방석·히터 등 난방용품을 최대 54% 할인하는 기획전을 24일부터 시작했다.

한편 편의점은 작년보다 서둘러 겨울 간식 판매에 들어갔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른 24일부터 찐빵을 선보였다. 단팥찐빵을 시작으로 야채찐빵·피자찐빵·순우유찐빵·고기,김치 만두 등 총 6종의 찐빵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추워지는날씨에맞춰 어묵 운영 점포도 확대할 방침이다.

임지현 세븐일레븐 푸드팀 MD(상품기획자)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따뜻한 겨울 먹거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찐빵과 어묵 등이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몸에 닿는 제품 깐깐하게…

알러지 케어 인증 세제·무형광 휴지 등 환절기 ‘민감성 피부 전용’ 아이템 인기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피부도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일수록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최근 유통업계가 무첨가·저자극을 앞세운 ‘민감성 피부 전용’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트러블 유발 요인을 쏙 뺀 세제·휴지 등으로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옷감에 남은 세제 찌꺼기는 피부질환이나 알러지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독일 세탁세제 브랜드 퍼실의 ‘센서티브 젤’은 지난 4월 국내 첫 출시된 민감성 피부 전용 세제다. 기존의 강력한 세척력은 유지하면서도 알러지 반응과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형광증백제·파라벤·표백제·포름알데히드 등 피부에 트러블 의심 성분을 배제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세탁세제 중 유일하게 유럽 알러지 연구재단센터(ECARF)의 ‘알러지 케어 인증’ 마크를 획득해 아토피·알러지 등으로 고생하는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 수시로 사용하는 화장지도 잘 선택해야 한다.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만드는 형광증백제는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무첨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미래생활의 두루마리 화장지 브랜드 ‘잘풀리는집’은 전 제품군이 무형광 인증 제품으로 전면에 관련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 피부장벽이 무너져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평소 철저한 보습 관리가 필요하다.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저는 무향의 보습제로 자극 없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얼굴뿐 아니라 보디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아이템이라 온 가족이 함께 쓰기 좋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종석, ‘가을 남자’ 매력 발산 제일모직의 캐주얼 브랜드 엠비오는 25일 배우 이종석과 촬영한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이종석은 부드럽지만 섹시한 눈빛으로 진정한 가을남자의 매력을 물씬 풍겼다. 특히 이종석은 모델 출신답게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제일모직 제공

李 이화의료원장, 美서 동창회 참석

제2부속병원 건립 홍보 및 건립 기금 협조 당부

이화여대 의료원은 이순남(사진)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 빌트모어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화여대 미국 의과대학 동창회 연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기간 동안 동창들을 대상으로 최근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병원이 이뤄낸 경영성과 등 의료원의 발전 현황을 설명하고 2017년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준공될 제2 부속병원과 의대 건립 마스터 플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이 원장은 제2 부속병원 건립에 대한 관심과 건립 기금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원은 올해 말 착공되는 제2 부속병원 건립 기금 모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조리도구 꼼꼼하게 고르자

실리콘 소재가 상처 안 나… 보관땐 걸어둬야



윤달(10월 24~11월 21일)이 끼면서 예비 신혼부부의 혼수 준비 기간도 빨라졌다. 신혼살림에 필요한 조리도구는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법도 달라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두면 좋다.

구입 시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소재다. 입에 닿는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조리도구일 수록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뒤지개’나 ‘알뜰주걱’은 냄비나 그릇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한 실리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옥소 굿그립 실리콘 스패츌러’는 300도 가량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는 내열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칼은 칼날과 손잡이의 이음새가 하나로 연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재료를 손질하거나 다질 때 음식물이 이음새에 끼는 것을 방지하고 때가 끼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한다.

천연 대나무를 원료로 한 행켈 뱀부 도마는 항균력·탈취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또한 칼을 무뎌지게 만드는 일반 도마와 비교해 칼의 수명도 오래 유지시켜준다.

한편 조리도구는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세척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서랍에 보관하는 경우 세균번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조셉조셉 케러셀 키친툴 트리는 조리도구 걸이대다. 6개의 키친툴을 걸어 보관할 수 있고 상단 부분 회전이 돼 사용이 편리하고 바닥면 테두리가 고무로 돼 있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안정적이다.

/김수정기자

“내 손으로 만지고 만들고 맛보니 좋네~”

식·음료업계, 능동형 체험마케팅 확산

국내 식·음료업계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체험형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까다로워지고 있는 소비자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선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자사 브랜드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시식회 등 단순한 샘플 전달의 수동적인 수준에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나서 제품을 만들어 보거나, 제품이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일부분을 담당하는 능동적인 체험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서울 강남역과 부산 해운대에 '아사히 수퍼드라이 엑스트라 콜드 바'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특수 냉각시스템을 통한 영하의 온도(-2℃~0℃)로 제공해 보통 4~6℃로 추출될 때보다 약 2배 더 부드러운 거품과 상쾌함이 강화된 수퍼드라이를 즐길 수 있다. 고객들이 내 손으로 직접 맥주를 추출하는 경험을 주고 마이스터 인증카드까지 줘 호평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고, 맛봐 엑스트라 콜드 바만의 가치와 장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른 맥주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어라운지'는 전문 바리스타에게 배울 수 있는 '커피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커피 아카데미는 커피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를 통해 소비자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매월 한가지 커피기구를



(사진 왼쪽부터) '아사히 수퍼드라이 엑스트라 콜드 바' 팝업스토어, 어라운지와 메트로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5월 진행했던 '커피 아카데미' 모습. /메트로신문 사진DB

직접 체험한다. 아카데미는 입문과 중급 난이도로 나눠 진행되며 입문 과정은 에어로프레스 특징과 사용법 설명을 중심으로, 중급 과정은 에어로프레스를 활용한 카푸치노 만들기 시연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도 지난 2008년부터 탐앤탐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해 왔다. 여기에선 전문 바리스타 교육은 물론 일반인 대상 커피 강좌를 벌이고 있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 7~8월 엄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이마트 문화센터 8곳에서 '나만의 빅맥 만들기 쿠킹 클래스'를 운영했다. 이 쿠킹 클래스 역시 '엄마가 놀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해 쿠킹 클래스에 참가하는 약 190여 명의 엄마와 아이들은 맥도날드 햄버거에 실제 사용되는 토마토·치즈·양상추 등 재료의 신선함과 우수한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식재료에 따라 기본 위생용품을 철저히 구분해 사용하는 회사 측의 위생 관리 시스템 체험을 통해 정크푸드로만 생각했던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환타도 서울 왕십리 비트플렉스 앞 비트광장에서 이색적인 체험 이벤트 '펀(Fun) 환타 믹스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환타에 환타를 더해 너만의 환타를 만들어 봐'라는 콘셉트로, 소비자가 환타 믹스 머신을 이용해 오렌지·포도·딸기·파이애플 등 4가지의 환타로 자신만의 새로운 환타를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제품을 재창조하는 '모디슈머(Modisumer)' 트렌드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다양하게 즐기는 영양만점 과일 요리

간편하게 아이스크림·건조 과일·주스로~

과일에는 우리 몸에 좋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반면 야채와 과일 섭취는 줄어들고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과일을 챙겨 먹기 어렵다면 돌 코리아가 제안하는 간편하고 다양한 과일 섭취법을 주목해보자.

돌(Dole) 코리아에서 출시해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홈가전 '요나나스(Yonanas)'는 얼린 과일만 넣으면 바로 과일 본연의 영양을 그



대로 담은 천연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파인애플이·망고·블루베리·딸기 등 다른 과일을 함께 넣어 만들거나, 아몬드·초콜릿 등 다양한 추가 재료를 넣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과일을 말려두면 보관하기 좋고 언제 어디서든 먹기 편한 간식이 된다.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칼륨·미네랄·비타민 등의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더 달게 된다. 말린 과일은 디저트에 섞어 먹거나 뜨거운 물을 넣어 향긋한 과일 차로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과일을 쉽고 간편하게 챙겨먹을 수 있는 건강 과일 주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높다. 착즙 주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물을 넣지 않고 100% 과일즙으로 즐길 수 있는 주서기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필립스 전자에서 출시한 미니 주서기는 착즙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1분 안에 기기 세척을 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와인 1병 시키면 1병 더”

멤버십 회원 구이메뉴 10% 할인 혜택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10월 3일까지 전 매장에서 MBC 수목 미니시리즈 '내생애 봄날' 제작지원 기념 이벤트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매장에서 와인(카르멘 톨텐 멜롯) 1병을 시키면 결제시 와인(카르멘 톨텐 카버네쇼비뇽) 1병을 무료 증정하는 '와인 1+1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또 기존 멤버십 회원고객이 구이메뉴(정식류·해피아워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 혜택을 주며, 행사기간 동안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겐 포인트(1000점) 무료 적립 및 냉면상품권(1매)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가을여행·캠핑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간편가정식(칠칠한우떡갈비·흑임자한돈너비아니·통등심돈까스·모짜렐라돈까스)을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달 30일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10봉)는 3만60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조로' 티켓, 도서출판 길벗의 '공감하는 능력'과 '제프스터디 영어명언 100강' 도서도 준다.

/박지원기자 pjw@

완전식품 '두부'의 재발견

콩의 소화 흡수율이 65%인데 반해 92.4%라는 놀라운 단백질 흡수율을 자랑하는 두부. 영양만점 두부를 좀 더 특별하게 즐기는 3가지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두부오코노미야키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 / 열량: 285㎉ / 조리시간: 40분

[재료] 두부 1모, 미나리 5대, 베이컨 2줄, 생새우 대하 6마리, 오징어 1마리, 밀가루 1/2컵, 마요네즈, 가쓰오부시 약간

[양념] 후춧가루 1/5작은술, 깨소금·소금 각 1/4작은술, 정종 1작은술, 참기름 1/3작은술

1. 두부는 으깨고 미나리와 베이컨은 한 입 크기로 썬다.
2. 오징어와 새우는 깨끗이 손질한다.
3. ①과 계란을 섞는다.
4. 프라이팬에 ③과 ②를 올린 후 반죽을 끼얹어 굽는다.
5. 겉이 바삭해지면 오코노미야키 소스를 붓으로 바른다.



◆두부장아찌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124㎉ / 조리시간: 60분

[재료] 두부 1모, 통 생강·마른고추 각 1개, 식용유 1큰술

[양념] 간장 1컵, 식초 1큰술, 통후추 5알, 소금 2작은술

1. 두부에 소금을 뿌려뒀다가 물기를 제거한다.
2. 프라이팬에 두부를 노릇하게 지진다.
3. 지진 두부를 2㎝x2㎝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는다.
4. 마른 고추는 4~5쪽으로 나누고 생강도 얇게 저며서 간장·식초·통후추와 섞어 ③에 끼얹는다.
5. 1일 후 간장만 따라내 냄비에 붓고 끓여서 뜨거울 때 다시 두부에 붓는다.

◆요구르트두부주스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 열량: 92㎉ / 조리시간: 10분

[재료] 두부 1/2모, 플레인 요구르트 1개, 우유 1/2컵

1. 두부는 키친 타올 등을 이용해 물기를 살짝 제거해둔다.



2. 두부와 플레인 요구르트·우유를 모두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 차게 준비해 마신다.

나도 신세경 같은 게임 개발자 돼 볼까

스마일게이트·NHN엔터 등… 열정 어필하면 OK







"내 꿈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의 여자 주인공 손세동(신세경·오른쪽 사진)은 남자 주인공이자 게임회사 대표인 주홍빈(이동욱)에게 이렇게 외친다. 자신이 개발 중인 게임 '몬스뚜르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도 자주 내비친다.

신세경처럼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대박까지 터뜨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FPS(1인칭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30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지원자격은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다. 모집직군은 플랫폼, 콘텐츠, 글로벌IP, 모바일 등 15개에 달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스펙보다는 '이해' '열정' '사명감'으로 구성된 스마일게이트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험을 어필하는 것이 합격 노하우다.

축구 시뮬레이션게임 '풋볼데이', 스마트폰게임 '포코팡' 등으로 게이머에게 친숙한 NHN엔터테인먼트도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2015년 2월 또는 2015년 8월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다.

특히 올 상반기 공채에 도입해 호평을 받은 '필 더 토스트(Feel the Toast)' 전형을 이번 공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필 더 토스트'는 지원자가 현재 근무 중인 선배 직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해 자리를 배정받고 하루 동안의 일과와 회의를 함께 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MMORPG '아키에이지'를 서비스 중인 엑스엘게임즈도 하반기 공채에 나섰다. 차기작 '문명온라인', 모바일 RPG 개발 등에 참여할 프로그래머와 아트, 기획, 사업 부문의 인력을 다음달 말까지 모집한다. 게임에 대한 열정과 장인정신이 높은 인재라면 환영한다.

외국계 게임회사도 인재 확보에 나섰다.

온라인축구게임 '피파온라인3'를 개발한 스피어헤드는 다음달 3일까지 대규모 공채를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게임기획자, 아티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 분야다. 신입과 경력자, 인턴까지 해당된다. 어학점수, 학력, 학점 등 자격기준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업계 한 인사담당자는 "게임은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구성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이 장점"이라며 "드라마에서 신세경이 보여준 열정만 가지고있다면충분히 게임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쿠키런 문질문질' 콘텐츠 전면 개편

모바일 퍼즐게임 '쿠키런 문질문질'이 난이도는 낮추되 재미는 높인 콘텐츠로 개편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데브시스터즈와 공동 개발한 캐릭터 콜렉션 퍼즐게임 '쿠키런 문질문질 for Kakao'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개편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비슷한 색상과 모양의 쿠키가 많아 구별이 어렵다는 이용자 반응을 고려해 쿠키 색감을 조정했다. 아울러 모양이나 색상이 비슷해 보이는 쿠키들이 같이 배치되는 확률을 낮췄다.

한편 보상 강화로 이용자 혜택은 강화하고 부담은 덜었다. 매일 접속하면 한번씩 주어지는 룰렛 이벤트 럭키찬스와 레벨업 보상은 상향 조정하고, 쿠키 뽑기 가격은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하트 보내기 남은 시간 표시와 게임방법 등의 설명도 보강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개편 후 새출발을 기념하는 '우리 함께' 이벤트를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참가자는 각종 아이템과 아이패드 미니2를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레전드오브킹' 출시 1주년 감사 이벤트

쿤룬코리아가 3D MMORPG '레전드오브킹' 출시 1주년을 맞아 감사 이벤트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다시 돌아온 절대코드!' 이벤트는 풍성한 게임 아이템을 총 5회에 걸쳐 제공받을 수 있다. '레전드오브킹 1주년의 추억'은 게임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당선자는 게임 아이템과 1주년 훈장을 받는다.

'1주년 축하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는 레전드오브킹 1주년 축하 메시지와 이용자의 게임 닉네임·서버를 손글씨로 작성 후, 인증샷을 찍어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참여 가능하다. 가장 정성껏 축하 메시지를 작성한 참가자 5명은 아이템 '아가멤논', 100명은 '1주년 패키지'를 선물받는다.

/장윤희기자

삼성 블루·나진 실드 롤드컵 출격

라이엇게임즈, 조별 리그 대한극장 생중계


삼성 화이트와 다크 패시지와의 조별리그 현장 모습. /라이엇 게임즈

2014 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C·D조 조별 경기가 시작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 대회 조별 경기 2차전을 2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결 방식은 월드컵과 같은 토너먼트다. 이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는 게임 약자 '롤'(LoL)과 '월드컵'을 본딴 애칭 '롤드컵'으로 불린다.

조별 경기 2차전은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는 삼성 블루와 나진 실드는 각각 C·D조에 배정됐다.

앞서 대만 NTU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조별예선 1차전에서 우리나라 대표 삼성 화이트는 6전 전승 기록을 세우며 전체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같은 선전 덕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게이머들을 '김치롤'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 1·2위가 8강에 진출하는 규칙에 따라 A조 삼성 화이트와 에드워드 게이밍, B조 로열클럽과 TSM이 8강에 올랐다. 8강전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A조 1위 삼성 화이트는 B조 2위 TSM과, B조 1위 로얄 클럽은 A조 2위 에드워드 게이밍과 각각 대결을 벌인다. C조와 D조의 8강 진출팀은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28일 오후 10시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4강전은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다음달 19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6만4000명으로 지난해 결승전 장소였던 미국 스테이스플스 센터의 관중 1만1000명 기록을 충분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대만 예선전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조별 리그전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생중계한다. 라이엇게임즈는 경기 생중계뿐 아니라 매일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빙고 게임, 포토존, 롤 퀴즈 등의 현장 이벤트를 병행한다. 로지텍 코리아는 다음달 12일까지 로지텍 G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롤드컵 결승전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명절 결혼 증후군

결혼 안 한 자녀 때문에 속 타는~ 가족 등살에 속 터지는~

결혼적령기 넘긴 자녀때문에 속 타는 부모마음...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ㅁ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문의 : 080-586-5000**



수준 높은 회원수와 기록적인 성장률, 앞서가는 가연이 고객 여러분께 더 큰 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만족도 각종 미디어의 설문조사와 전문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친 수상내역을 통해 높은 고객만족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회원 확보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과의 제휴 네트워크를 통한 수준 높은 회원 확보로 추천 단계부터 그 격이 다릅니다

고객 권익 보호시스템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와 철저한 신원인증 및 관리로 개인 정보 보호는 물론, 계약완료 후 A/S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최적화된 매칭시스템 이상형을 분석하고 찾아내기 위한 GMS를 기반으로 최적의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 단일 사옥 국내 결혼정보업계 최대 규모의 단일 사옥을 자랑하는 가연타워는 17층 전관을 결혼서비스에 맞춰 특화시켰습니다

연중무휴, 가연의 커플매니저가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가연결혼정보(주)에서는 언제든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문의 등 고객의 편의에 따라 연중무휴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커플 매니저가 지정되어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본사와 동일한 시스템과 직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연타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2번지 ■전국 네트워크 : 서울본점 | 수원지점 | 경인지점 | 대전지점 | 대구지점 | 부산지점 |

상담 | 문의전화 **080·586·5000**

Beautiful ONE

元[으뜸 원]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종합 1위 기업, 가연"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문의 : 080-586-5000**

願[바랄 원]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제대로 된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은 따로 있다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사전 정보없이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는 없는 법.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 해 봐야 할 내용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와 서비스 품질 및 사후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와 철저한 보안. 그리고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080-586-5000**

援[도울 원] "결혼 고민 앞에 망설일 필요는 없죠"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결혼정보회사의 문 앞에서 다소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은 이렇게 조언한다. "결혼에 대한 고민조차 마음껏 털어놓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고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역할은 물론 회원이 원하는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 드리는 일이예요. 하지만 그 전에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고민, 부담,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커플매니저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가 수행하고 도움을 드리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 하면 등급이라던지 노블레스라던지 하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고, 저희 가연에는 전문직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배우자상이 다르고 그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고 있죠. 그런의미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용기와 가치를 지닌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주저함과 망설임은 잠시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나 커플매니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상대, 결혼생활,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이자 전문적인 조언자니까요.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결정할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건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들, 방향성 제시겠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미혼남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자 보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의 : 080-586-5000**

LG전자, 이젠 삼성과 논란 끝내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경제산업부 기자>

국내 전자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야 무엇이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양 사는 수년째 틈만나면 서로를 공격했고, 때론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냉장고 분쟁을 매듭 지은 지 1년여만에 세탁기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가전 부문에서 1년에 한번 이상 소송으로 부딪치는 셈이다. 국내 재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감정적 대립이 해외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대다수다.

여기에 LG전자 상무 등이 에어컨 관련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사 삼성전자가 제출한 문건을 빼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한국 대표기업 브랜드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

최근 양사의 분쟁을 보고 있으면 생존경쟁을 넘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 경쟁사들이 오히려 득을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개별 기업으로 볼 때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다툴 수 밖에 없는 경쟁 업체지만, 전세계 무대에서는 같은 국내 기업으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경쟁 기업간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서로 협력해 기술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경쟁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기술을 인정한 반면 한층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LG가 국내를 넘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무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피하고 발전의 동력을 주고 받는 관계로 거듭나야 할 시기다.

"대리기사 분께 죄송"

'폭행 시비' 세월호 유가족 4명 대질조사… 혐의엔 '침묵'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오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의 대질 조사에 참여하는 신고자와 목격자 3명은 "진술한 내용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현 의원이 반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 조사 결과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오른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대질 심문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공무원단체에 연금개혁 입장 공식 요청

공무원연금 국회 토론회가 공무원 단체의 방해로 무산되자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25일 복수의 공무원 단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및 공감 여부'와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회신 예정 일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공투본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공식 의견과 대안을 요청했다. 이어 19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석한 공무원 단체의 방해로 무산됐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한·일 오늘 뉴욕서 외교장관 회담 가져

●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일(한국시간)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현지에서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여 혁신위, 홍준표·원희룡 자문위원장에

● 새누리당은 25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소설가 복거일씨와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7명을 추가로 보수혁신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혁신위원으로 위원 명단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끝에 자문위원장으로 자격을 바꿔 임명됐다.

KF-16 공중급유 받고 알래스카까지 비행

● 공군은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투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KF-16D 항공기 6대는 아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수송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C-130H 2대는 엘멘돌프 미 공군기지에서 각각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경근, 수사·기소권 취지살릴 방안 요청

기존 원칙론에서 입장 변화 시사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저희는 그 전부터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겠다고는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진상조사위 내에 특검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 및 수사 기간 보장,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성 보장의 3대 원칙을 강조하며 "여야 간에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곧 나서 여야 간에 얘기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면담에 대해 "유족 대표단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국민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족 대표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협상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국어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9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발표… '물 수능' 재연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영역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으로 추정한 전체 응시인원 대비 만점자 비율이▲국어 A형 4.19%, B형 5.34% ▲수학 A형 0.38%, B형 0.52% ▲영어 3.71%다.

국어 B형의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 본 수능(0.92%)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영어 영역에서 만점자가 5.37% 나와 일었던 '물수능' 논란이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영역에서 재연된 셈이다.

특히 국어 A/B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1등급 커트라인이 됐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평가원 관계자는 "국어 영역에서 지문 수가 지난해 16개에서 이번에 12개로 줄어든 점이 학생들의 성적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 역시 '쉬운 수능 영어' 기조가 유지되면서 변별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9월 모의 수능 결과에 따른 2015 수능 영역별 난이도를 예상해 보면, 국어영역은 9월 모의평가 보다는 약간 어렵게, 영어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대포통장 1만개 팔아 100억 부당이득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 1만여개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압수된 대포통장 등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보수 땐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윤다혜기자



'봐도 봐도 예쁘네'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참가자들이 각종 공예품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림사건' 피해자 33년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서울 지하철 2·3호선서 '90초 영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제5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를 다음달 9일까지 개최한다.

서울메트로는 영화제 기간 동안 2·3호선 전동차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 초단편 영화 26편을 상영한다.

지하철1~4호선 120개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모니터와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서울메트로 홈페이지·맥스무비 홈페이지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90초짜리 초단편영화는 지하철 한 두 역을 이용하는 동안 감상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남동발전과 산재예방 협약

안전보건공단은 24일 한국남동발전과 '전력산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남동발전과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국내 8개 발전기업들과의 안전보건 협력 연계망을 구축했다.

협약에는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본부를 비롯한 6개 발전단지 협력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단은 이들 발전단지가 선진 안전기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비롯해 매뉴얼 작성,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남동발전은 협력사와 시공사가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설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과 허엽 한국남동발전(주) 대표이사가 전력산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80대 여성 전동차·스크린도어 끼여 숨져

25일 80대 여성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9시 51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역) 상행(당고개)방향에서 승객 이모(81·여)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틈새에 끼어 끌려가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뒤늦게 열차에 탑승하려다 열차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탔고, 스크린도어 밖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는 힘에 몸이 휘청거리면서 스크린도어와 선로 사이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전동차가 그대로 7~8m를 전진했고 이씨는 몸이 낀 채로 그대로 끌려가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 열차에도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려 있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으나 기관사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상행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34분 만인 오전 10시 25분께 운행이 재개됐다.

/유주영기자 boa@

metro HongKong


走私瘋

炒燶者眾

一部iPhone 6手機，可以把中國弄至翻天覆地！近3天中國深圳海關查獲走私iPhone 6合共600餘部，港方也截獲29部。水貨客的走私方法，可謂無奇不有。也有中國人為炒iPhone 6，在美國排隊認購時大打出手，丟架丟到美國！

深圳海關表示，有的水貨客將iPhone 6藏在茶葉盒、蛋黃批包裝盒、咖啡包裝盒、牙膏包裝

事人多 認是攜 另在22 文一家 而打鬥 炒家 不 足，遊 覇下隋 黄牛黨 的黄牛 黄牛表

metro France


un roman avec vos SMS, c'est
ıais possible

2014 17:24 - CRÉÉ : 22-09-2014 12:03

– Des Toulousains ont mis sur pied une application et un site Web per
ıS stockés sur son téléphone en livre. En quelques semaines, une cent
té imprimés.

Patrice Rumeau, deux des concepteurs du site "Mon livre" Photo : Ph

문자메시지를 전자 책으로

프랑스 툴루즈의 다섯 청년이 기획한 문자메시지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화제다. 5개월 전 처음 사업을 기획한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책 출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아 전자책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조만간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메시지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도 넣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metro Russia


Тигрят пока
никак не зовут

모스크바 동물원 새끼호랑이 공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이 새끼 호랑이 일곱 마리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동물원은 지난 6월 어미 호랑이 바리쉬카가 새끼 4마리를 나은데 이어 3주 전 또 다른 호랑이 마트료쉬카가 3마리를 출산해 겹경사를 맞았다. 동물원 홍보 담당자는 "마트료쉬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미 호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아기 호랑이를 물어 죽이거나 돌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metro Brazil


ABC'

'드라이브 베이커리' 등 이색 서비스 상점 눈길

브라질 상파울루 주의 ABC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례로 성 베르나르두 지역에서는 지난 7월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베이커리가 개장했다. '빵 투 고'라는 이름의 이 빵집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쇼핑을 위해 차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전략을 취했다.

타마라 카시올리 '빵 투 고' 사장은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루 평균 140명의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 특히 붐비는 점심시간 대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 오픈 첫 주부터 우리 빵집을 자주 방문하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전했다.

산투 안드레 지역은 오직 '영어'만 통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되고 있다. 이곳에서 손님들은 현지어 포르투갈어가 아닌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캐나다인 루스티 콜슨 사장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 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 카이타누 지역에서는 신개념 네일 아트 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술과 네일 아트를 조합한 '네일 바'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네일 아트를 받으며 술을 즐길 수 있다. 아마룰라(남아프리카 대표 술)에서부터 카푸치노까지 25종의 음료가 제공된다.

제시카 줄리아니 네일 바 사장은 "이곳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고객을 위한 장소이다. 특히 미용 숍 특유의 불편한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맞는 곳이다. 한 달에 약 600명의 여성 고객들이 네일 바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찻잎 선물상자에 아이폰6 여섯 대

본토 애플 팬·판매업자 홍콩 등지서 밀수… 선전 세관에서만 1800대 적발



애플의 신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동시에 출시 되지 않을 때마다 중국의 애플 팬은 마음이 조급해진다. 자연스럽게 애플 신제품 발매 시기는 세관이 밀수를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시기가 된다.

아이폰6는 19일부터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와 판매 업자는 제품을 몰래 대륙으로 들여오려다 덜미를 잡혔다. 선전 세관은 23일 오후까지 뤄후, 황강, 원진두 등 항구에서 아이폰6 1800여 대를 적발했다.

선전 세관은 19일 홍콩 여성 림모씨가 뤄후 항구를 통해 입국할 때 유달리 긴장한 모습을 보여 가방 검사를 했다. 가방에는 지갑과 생리대용 파우치, 열쇠, 휴지 등이 들어있었다. 파우치에서 딱딱한 물체가 만져져서 열어보니 아이폰6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푸톈 항구에서는 학생 복장을 한 중국 관광객이 큰 찻잎 선물상자를 들고 검사대를 피해 지나가다 직원의 눈에 띄었다. 찻잎 상자 안에는 찻잎이 아닌 아이폰6 여섯 대가 들어 있었다.

22일 뤄후 세관과 홍콩세관 뤄후 통제소는 공동으로 밀수 퇴치 작전을 펼쳤다. 작전 중 세관은 남성 2명이 각각 아이폰6 세 대씩을 속옷에 숨겨 입국하는 것을 적발했다.

아이폰6가 아직 중국에서 발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용자들은 애플 홈페이지에서 주문예약을 하거나 다른 경로로 중국 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다.

뤄후 세관이 지난 며칠간 발견한 아이폰6 중에는 일반 관광객이 인터넷에서 예약한 휴대전화를 홍콩에서 가지고 온 것도 많다. 대부분은 20대 젊은층으로 1, 2대 많으면 3, 4대를 사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가져왔다.

외부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해 세관은 합리적인 수량인 경우 관세를 받은 뒤 통과시키고 있다. 거액의 차익을 위해 아이폰6를 밀수하는 행위는 세관의 적발 대상이다. 중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관세상품 중 하나로 입국 시 1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 아이폰6는 이르면 다음달 판매될 예정이다.

/정리=조선미기자

자유총연맹, 제4이동통신 출사표

컨소시엄 구성 내달 미래부에 사업 허가 신청
연내 4곳 이상 경쟁체제 난립…실현가능성 의문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KFT)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7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4이통 사업자 허가 획득에 실패한지 2개월 만이다.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이통 출범을 발표했다.

허세욱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폰 요금 반값'과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 공약을 한국자유통신이 실현할 것"이라며 "연맹 회원 150만명과 회원 기업들이 중심이 돼 자본금 1조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다음 달 중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유통신은 통신 기술 방식으로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앞서 KMI측이 제4이통 추진을 하던 기술 방식과 동일하다.

그동안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과정에서 실패 요인으로 수차례 지적된 재무구조 부분도 자신했다.

허 회장은 "최초 자본금 1조원 조성은 끝났으며 연내 사업 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통해 1조원을 추가 확보, 총 2조원의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유통신이 이날 공개한 지분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연기금 등이 각 5~15%씩 총 70%의 지분투자를 하게 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공모해 20%의 지분을 구성한다. 또 개발·창설·특수기여자 등 약 40~50명에게 10%의 지분(1000억원 상당)을 무상배정하기로 했다.

박건홍 한국자유통신 부회장은 이와 관련, "기술개발 참여진·법무단·평가단들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데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자유통신의 제4이통 진출과 관련, 일각에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유통신의 주관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내 제4이통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 허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막바지 경쟁자가 늘어나 사업 진출에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이들 업체 간 경쟁 시 재무구조·전문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자유통신의 제4이통 진출도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업계는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을 비롯해 막바지 제4이통에 도전장을 내밀 업체들이 4곳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업체 모두가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래부가 허가대상법인 선정시 엄격한 규정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 미래부에 따르면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사항은 ▲기술적 능력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을 평가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연 제4이통이 출범하더라도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포화상태인 국내 통신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65%
13년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5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64.6%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25개구 중 23개구 상승 또는 보합세가 연출됐다. 강남구(56.4%)와 양천구(61.5%)만 전월에 견줘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두 지역의 경우 재건축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매매가 상승분이 전세가 상승분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115만원으로 올해 2월 3억원대를 돌파한 후 매월 최고가를 갱신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매매가도 0.31% 상승하며 전월(0.03%)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재건축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0.90%), 양천구(0.55%), 강동구(0.55%), 서초구(0.51%) 순으로 상승세가 거세다.

/박선옥기자 pso9820@



위·변조 방지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폐공사가 개최한 '제1회 위·변조 방지 신기술 설명회'에서 상품권 등에 무늬를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넣어 스마트기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보안패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오일뱅크, 대산 윤활기유 공장 가동

윤활유 시장 '4파전'

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공장에 연산 65만t의 윤활기유 공장을 짓고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셸과 공동으로 윤활기유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국내 윤활기유 시장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됐다.

현대셸베이스오일은 25일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 마크 게인즈버러 셸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등 양사 관계자와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활기유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내 4만6000㎡(약 1만4000평) 부지에 들어선 이 공장은 착공 1년6개월 만인 지난 7월 기계적 준공을 거쳐 2개월간 시험가동을 마쳤다.

현대오일뱅크와 셸이 6대 4의 비율로 합작한 현대셸베이스오일은 하루 2만 배럴의 중유를 처리해 연간 65만t의 윤활기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내수 판매와 수출을 통해 연간 1조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윤활기유는 고도화 정제 공정에서 나오는 기름(잔사유)을 처리해 만들어진다. 윤활유의 기초원료로, 윤활기유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면 자동차, 선박, 산업용 윤활유 완제품이 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 석유제품의 정제마진 감소 등으로 실적이 급감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활유와 윤활기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윤활유 시장 규모는 연간 2조5000억원 상당으로 GS칼텍스(17%), SK루브리컨츠(16%), 에쓰오일(12%) 등 3사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문종박 대표는 "안정적인 공장운영 노하우와 정제 기술, 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2034.11	(−1.53)
코스닥	577.48	(−2.94)
금리(국고채 3년)	2.33	(−0.01)
환율(원·달러)	1043.50	(+5.50)

뉴스&뉴스



KT, 프랑스 이동통사와 여행정보 앱 '웰컴 투 파리' 개발 KT는 프랑스 이동통신사인 오랑주와 파리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 '웰컴 투 파리'의 시험버전을 공동개발했다.

/KT 제공

기업 "4분기도 어려울 듯"

●국내 기업들이 연말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기업체감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34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7'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소비부진, 환율불안, 노사불안 우려, 중국 수출 부진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

항공기 성희롱 대응 강화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성희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항공사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010년 140건이었던 기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해 올 들어 7월까지 190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으로 집계됐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조 민 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반기 환율 1005원선 하락 전망

내년 100엔 당 800원대 중반까지, 대책 서둘러야

하반기 원화 환율의 강세가 더욱 가파라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05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에 100엔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이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가 4%대 성장률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됐던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고용 호조와 물가 안정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어 내구재 소비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3%에서 내년 3.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원화 환율의 강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하반기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평균은 1005원, 엔화 대비 원화환율은 905원으로 상반기 평균인 각각의 1015원과 940원 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상가상 내년에 100엔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 주최한 '추락하는 원·엔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내년 엔저 현상 지속 가능성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내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12년 6월 이후 56%나 절상된 원화의 엔화에 대한 절상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100엔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달러 강세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원화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순매수로 약세 전환에 제약을 받아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수출 증가율이 급락하고 기업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유사한 원·엔 환율 하락 이후 발생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에 엔·달러 평균 환율이 116엔을 기록하면 순수출이 감소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27%포인트 하락할 것" 으로 예측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생보 3사 해외점포 영업 '고전'

상반기 828만달러 적자

상반기 생명보험 3사가 해외영업에서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6개국에 11개 현지법인을 운영중인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는 올해 1~6월 828만달러(한화 86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4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손실 규모(-2001만 달러)보다 손실폭이 1173만 달러 줄어들었으나 적자 국면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해외점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87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적자(-1304만 달러)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화생명의 당기순손실은 91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흑자(1만 달러)를 기록했던 교보생명은 이 기간 당기순이익이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역별 해외점포 손익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 소재 점포 6곳은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과 동남아 점포들이 각각 666만 달러, 648만 달러어치 적자를 봤다.

반면 미국, 영국의 투자업·부동산업은 소폭 흑자를 냈다.

미·영 소재 5개 점포가 낸 이익은 총 486만 달러였다.

이들 업체의 해외점포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2.3% 증가한 15억25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험업 매출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7011만 달러)와 보험업·투자업 등의 자본 확충(2억9000만 달러)이 영향을 끼쳤다.

해외점포 부채 역시 책임준비금 증가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28.7% 늘어난 5억1457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해외영업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석기자

'연 4.6%' 재형저축 인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연 최고 4.6%의 금리를 주는 근로자재형저축(재형저축)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 등 7개 은행의 재형저축 신규가입 계좌수는 7월과 8월 각각 8077계좌, 7634계좌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신규 가입 계좌가 4082계좌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2배 가까운 증가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자의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7년간 적금 형태로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14%)를 감면받는다.

또 가입 후 3~4년간 해당 이율을 확정금리로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김덕수(왼쪽) KB국민카드 사장과 최동천(오른쪽) 마스타카드코리아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가상의 카드번호로 결제한다'

KB, 마스타와 손잡고 '해외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국민카드는 마스타카드와 손잡고 가상의 카드번호로 결제가 이뤄지는 '해외 온라인 안전결제(SecurePay)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는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해당 가맹점에 실제 카드번호가 아닌 가상의 카드번호를 제공된다.

특히 이 카드번호는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이용횟수와 한도,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해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1개의 실제 카드에 대해 복수의 가상 카드번호 생성이 가능해 해외 온라인 가맹점과 카드 이용 목적에 따라 각각의 가상 카드번호별로 이용횟수와 한도, 유효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에 설정한 유효기간 전이라도 폐기 할 수 있다. 다만 카드 도난 분실과 재발급, 해지 등으로 실제 카드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가상 카드번호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가상 카드번호는 KB국민카드 중 마스타카드 브랜드로 발급된 개인 신용카드나 개인 체크카드 소지 고객(법인카드, 가족카드, 마에스트로카드 제외)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KB국민카드 모바일홈 앱에서 ▲1회 결제 ▲월이용금액제한 ▲직접설정 등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해 만들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별도 가입비와 이용 수수료는 없다.

장용일 KB국민카드 국제사업부 부장은 "대부분의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고객의 결제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해킹 등의 사고 발생 시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컸다"며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선 보이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해외직구 등 해외 온라인 가맹점 이용 시에도 KB국민카드 고객들은 보다 안심하고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한국인만모르는코리아명품?
소주가9,900원?
제사음식으로쓰이는한국과자?
간식도한류시대?
공기밥은왜흔들어먹지?
코리아그라?
최고몸값이방인?
한국의기록적인숫자들?
세상을놀라게한민족성?
알면깜짝놀랄걸!
한국생활백서
용감한 랭킹
매주 화요일 밤 11시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E channel



남기섭(오른쪽)수은 수석부행장과 비니쉬 쏘니(Vineyesh Sawhney) 릴라이언스그룹 ECA 금융 총괄본부장이 계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수출입銀, 삼성전자에 금융 제공

인도 4G-LTE 구축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삼성전자가 인도 릴라이언스지오인포컴으로부터 수주한 인도 전국망 4G-LTE 구축사업에 7억5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도 릴라이언스 4G-LTE 구축사업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공급과 구축,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우리투자증권 , 농협·신한·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4개사가 공동 참여하며, 수은은 금융 제공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보증과 우선상환제를 제공키로 했다.

남기섭 수석부행장은 "인도는 한국의 선진 LTE 시장을 벤치마킹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 앞으로 휴대폰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인도 통신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활발한 금융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사장은 "수출입은행의 금융 제공으로 한국 이동통신장비의 인도 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은행의 신흥시장 금융지원은 한국의 앞선 LTE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복권형 주식 선호 여전"

개인 비중 10년새 72%에서 47%로… 소형주 투자 확대 유도 방안 필요

어쩌다 한 번 큰 수익을 내는 복권형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면 고가주 액면분할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소형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전환기의 한국 주식시장'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개인투자자의 지나치게 잦은 '손바꿈'은 줄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주가 기대감이 크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 '대박'을 치는 소위 '복권형' 주식에 대한 개인의 거래회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저가의 소형주로 수익성과 성숙도가 낮지만 변동성이 높은 기업을 주로 거래하는 투자 행태를 개인들이 버리지 않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거래를 통한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 기존 행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형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은 수천억원에 머무르는 매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관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의 평균 시총은 2000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복권주 가격대를 보면 2만원 미만에 형성됐다. 기관이 2000년 5만원 안팎에서 지난해 10만원 부근으로 두 배 가까이 거래 가격대를 높인 것과 상반된다.

개인의 거래회전율이 하락하면 전체 증시에 결국 부작용을 초래한다. 거래회전율이 하락하더라도 증시에 참여하는 개인이 많지 않다면 시장의 완전한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

개인의 거래회전율은 지난 2002년 928%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196%로 4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수준에서 47%로 크게 줄어들었다.

개인 참여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관의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주식 투자도 기관처럼 우량 장기투자 방향으로 활성화되려면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득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 등 개인의 주식 투자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30~40대 주주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인이 될 전망이다.

그는 제도 측면에서는 "고가주 액면분할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소형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합병 계약서 체결 정해봉 하나SK카드 사장(오른쪽)과 외환카드 권혁승 사장(왼쪽)은 25일 양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통합 카드사 출범을 위한 합병 계약서를 체결했다.

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또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내부통제 등을 살펴보는 경영실태평가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사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최소영업자본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NCR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막으려고 1997년 4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NCR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내린다. /김민지기자 minji@

단기보험 전용 온라인 쇼핑몰 개장

현대라이프생명은 오는 26일 단기보험상품 전용 온라인쇼핑몰인 '현대라이프 제로 단기보험 선불권몰'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업계에선 처음으로 연 이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의 선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선불권은 별도의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가입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배송지 정보를 선물 받을 사람의 수령지로 입력하면 된다.

다만 단기보험 선불권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구매 후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불권은 옥션, 이마트몰, 이마트(가양·용산·월계·자양·죽전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되는 상품은 어린이 안전사고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여행이나 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고보험, 차량 운전이나 탑승 때 교통재해에 대비하는 교통사고보험 등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연금보험 수령 공휴일이면 직전 날 받는다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서 상담시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도 은행권과 동일한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8월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연금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공휴일에 지급한다. AIA생명과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그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선 보험회사 콜센터(1588-OOOO) 상담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연결된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는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돼 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할 경우 보장 시점이 명시되고,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를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거래 진행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석기자

10月 분양대전 펼쳐진다

10대 건설사 중 내달 8곳 홍보 나서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 높고 자금력 탄탄

분양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0월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신규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시공순위 10위권 내 대형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 인기가 꾸준하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월 분양을 준비 중인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에 이른다.

가장 많은 분양이 예고된 건설사는 대우다. 대우건설은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경기도 화성·양주 등 4곳에서 수요자를 만난다.

경남 창원 용원택지지구에 짓는 '창원 마린2차 푸르지오'는 전용면적(이하 동일) 59~84㎡, 전체 599가구 규모다. 용원지구 마지막 물량으로 바다와 산 조망권을 갖췄다. 초·중·고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

경기도 화성과 양주에서는 각각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1265가구와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2회차 562가구를 선보인다. 충남 천안에 들어설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995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영통'을 분양한다. 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거리이고,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영통로, 덕영대로 등의 도로망과 인접했다. 총 2140가구, 62~107㎡로 구성된다.

롯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공급을 준비 중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광안대교, 황령터널이 가깝다. 59~121㎡, 총 3149가구 중 1866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힐스테이트 브랜드 통합 후 처음으로 '힐스테이트 매미산'을 선보인다. 경기도 용인시 서천지구 5블록에 조성되며, 84~97㎡, 총 754가구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있지만 수원 영통 생활권이다.

대림산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아크로타워 스퀘어'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e편한세상 화성'을 공급한다. 이 중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59~142㎡, 1221가구 중 65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e편한세상 화성은 59~84㎡, 1387가구 규모다.

GS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1블록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 1222가구와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 센트럴 자이' 1341가구 중 41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또 삼성물산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장전' 1938가구 중 1384가구를 공급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2014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4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둘러보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0대 재벌 5년 새 자산 50% 증가

재계 10대 가문의 자산이 5년새 50%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CEO스코어가 자산순위 국내 100대 그룹에 포함된 10대 가문의 최근 5년간 자산과 매출·순이익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산은 1244조6000억원으로 2009년 810조원보다 53.4% 증가했다.

계열사수는 820개에서 985개로 20% 늘었다. 10대 가문의 자산은 100대 그룹의 70.9%에 달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한국 재계의 10대 가문은 이병철가(범 삼성)·정주영가(범 현대)·최종건가(SK)·구인회가(범 LG)·신격호가(범 롯데)·허만정가(GS)·조중훈가(범 한진), 김종희가(한화)·박승직가(두산)·조홍제가(범 효성) 등이다.

100대 그룹 중에서는 28개 그룹이 10대 가문에 가속했다.

10대 가문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그룹이 속한 이씨 가문이다.

2009년 222조6000억원에서 386조원으로 73.4% 증가했다. 삼성그룹 자산이 331조원으로 5년간 139조원 늘어 범 삼성가의 비중도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성훈기자 zen@



테하차피 풍력단지 전경 및 LG화학 ESS.

LG화학, 북미 에너지시장 공략

캘리포니아 ESS(에너지 저장장치) 가동

LG화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구축한 북미 최대 32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가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 미국 에너지성과 캘리포니아 전력업체인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가 추진하는 ESS 구축사업자로 선정돼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소재 테하차피 풍력발전단지내 모놀리스 변전소에 ESS를 구축했다.

32MWh는 100가구가 한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기차 2100여대 분량인 배터리셀 60만여개가 들어갔다. 이 장치를 전기차 볼트에 탑재하면 지구 3바퀴(12만㎞)를 돌 수 있다.

이번에 완공된 ESS는 날씨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풍력발전의 전기를 모았다가 안정화시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기반으로 LG화학은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ESS 전체를 직접 시공하는 구축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은 "배터리 업계 최초로 북미에 대규모 ESS 전체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시공 능력은 물론 PCS(전력변환장치), SI(시스템통합) 등을 담당하는 업체 선정·관리 능력까지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업은 미국 정부기관인 에너지성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국책과제로, 향후 북미 ESS 시장 공략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네비건트 리서치는 전세계 ESS 시장의 규모를 2013년 16조원에서 2020년 58조원으로 연평균 53%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대학생 하이브리드車 경진대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오성철, 코리아텍)는 오는 26~27일 양일간 충남 천안 소재 캠퍼스에서 '2014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충남대, 명지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19개 팀이 참여한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대학생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기술 능력 함양 ▲젊은 공학도에게 신기술 자동차 설계 및 제작을 통한 도전의식 고취 ▲유관분야 우수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회 참가 차량은 학생들이 직접 설계·제작한 하이브리드차량(차량 무게 170kg 이내, 차량 길이 4m, 차량 폭 1.7m 이내)이다. 엔진은 주최 측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첫째 날인 26일에는 기술심사와 성능테스트가, 27일에는 주행테스트가 진행된다. 주행테스트는 1.5km의 주행로(교내 도로)를 40바퀴 주행해 연료 소비, 전력소비, 평균속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배점은 ▲기술심사(차량 및 하이브리드 특성) 200점 ▲성능테스트(가속 및 제동시험) 200점 ▲주행테스트(평균속도 200점, 연료소비량 200점, 전력소비량 20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오성철 직무대행은 "이번 대회에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최고 명문대인 'The Petroleum Institute'의 기계공학 교수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팀 학생들이 참관한다"며 "내년에는 이들 대학뿐 아니라 코리아텍과 MOU를 체결한 중동 및 유럽 국가 대학 학생도 참여토록해 국제적인 대회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스마트폰 시장, 5인치대 경쟁 점화

올 가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한 5인치대 제품으로 한 차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5.7인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를 26일 국내 시장에 첫 출시하며 시작을 알렸다. 이어 LG전자와 애플, 소니코리아가 5인치 스마트폰 대전에 합류한다.

애플의 4.7인치 아이폰6와 5.5인치 아이폰6플러스는 이르면 10월 말쯤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등에서 이미 출시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이전 시리즈보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 애플의 해당 제품들은 출시 첫 주 1000만 대 판매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초 10월 출시로 준비했던 갤럭시노트4를 조기 출시하는 것도 애플의 신제품이 국내 출시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갤럭시노트4에 기본 탑재된 디지털 음악 서비스 '밀크'는 장르별 추천 음악을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60만 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120도 화각 사진 '와이드셀피'를 지원해 손을 길게 빼지 않아도 다양한 셀프 카메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소니도 5.2인치 엑스페리아Z3를 앞세워 하반기 5인치 스마트폰 대전에 동참한다. 29일 출시 예정인 엑스페리아Z3의 출고가는 79만9000원으로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개통할 수 있다.

소니는 엑스페리아Z3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기술, 오디오 기술, 디스플레이 기능 등을 탑재시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LG전자도 조만간 독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한 5인치대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르면 10월 독자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국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G시리즈에 포함될 예정이다. 5.9인치 화면을 탑재한 70만원대 중·고가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가을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왼쪽부터) 소니 엑스페리아Z3, Z3컴팩트,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삼성·LG·애플·소니 등 신제품 출시 임박…화질·기능 강화

"이동전화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이동전화서비스에 지난달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4만9481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는데 이 중 이동전화서비스 품질문제가 174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전화 1610건(3.25%), 상조회 976건(1.97%), 스마트폰 973건(1.97%), 헬스장 896건(1.81%), 국외여행 878건(1.77%), 초고속인터넷 791건(1.60%), 팬션 719건(1.45%), 전기세탁기 669건(1.35%) 등의 순이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전기세탁기로 87.4% 증가했다. 이어 자동차대여(52.6%), 국내여행(28.8%), 팬션(24.2%) 등의 순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모 회사의 세탁기에 대한 불만이 방송된 이후 소비자 불만 상담이 증가했다"며 "해당 업체는 품질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스톤헨지 2014 마스터피스 컬렉션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호림아트센터에서 모델들이 스톤헨지 2014 마스터피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부적합 철강재 심각성 알리자

철강협회, 산업展서 18개 부스 마련 대대적 홍보

한국철강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에서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심각성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재 수입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특히 부적합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철강협회는 이번 산업전에서 대형 부스 18개를 마련해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부적합 스테인리스 제품 신고 센터, 품질검사 위변조 방지 여부를 확인하는 큐리얼(QReal) 시스템 홍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어플을 다운받아 가짜 품질검사 증명서를 찾는 이벤트, 부적합 철강재 관련 퀴즈 이벤트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엉터리 광고' 리복·휠라 등 9개사 과징금

리복·휠라·프로스펙스 등 엉터리 광고를 한 스포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며,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운현궁에 가서 운현궁만 볼 게 아니다

권기봉의 **도시산책** <97>

얼마 전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인사동을 찾았다. 그곳에서 따끈한 차 한 잔을 하고 찾은 근처 운니동에 있는 운현궁(雲峴宮)에 잠깐 들렀는데 마침 유난히 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여느 때와 달리 방문객이 적어보였다.

운현궁은 그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과 함께 구한말 비운의 역사가 갖는 처량함때문인지 답사 내내 차분한 기분이 들게 했다.

먼저 우뚝 선 솟을대문을 통해 운현궁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사랑채인 노안당(老安堂)이 나온다. 위엄있어 보이는 노안당은 흥선대원군이 기거하던 생활 공간이자 고종 즉위 이후 섭정을 하던 구한말 정치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노락당(老樂堂)이 나온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가 열린 곳으로 유명한데, 가례는 왕이나 왕세자가 왕비나 세자빈을 맞는 혼례를 의미하며 '국혼'이라고도 한다. 그 안쪽에 있는 이로당(二老堂)은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부대부인 민 씨가 거처하던 안채로 왕궁으로 치면 중전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그런데 운현궁 답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운현궁의 바로 북서쪽에 붙어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공보문화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일본공보문화원은 지난 1971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관실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래 1988년 주한일본대사관 광보문화원을 거쳐 1993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자리는 원래 구한말 당시 일본의 헌병 초소가 있던 곳이다. 운현궁에서 생활하던 흥선대원군을 비롯해 조선황실 인사들의 동태 감시가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

또한 운현궁 뒤쪽에 있는 '양관(洋館)'이라는 근대 건축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덕성여대 법인사무국 건물로 쓰이고 있는데, 일제가 흥선대원군의 장손인 이준용에게 선사한 건물로 황실 인사들을 회유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보통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면 해당 건물이나 현장만을 둘러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함께 두루 살펴볼 때 비로소 그 문화유산과 관련한 역사의 이면과도 대면할 수 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내 잔병치레로 부부관계 나쁜 데…
돈버는 일보다 부인 건강에 신경을

Q 배두산산 남자 72년 9월 5일 양력 07시

이번 추석에는 가정사로 인하여 집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사주 속으로'를 보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막냇동생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올해 43세로 지금 교육관련 사단법인에서 총무일을 보고 있는데 현재 두 가지 일로 고민 중입니다. 한 가지는 이사장과 가끔 트러블이 생겨 자주 이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서 어학 관련학원을 차리고 싶은데 잘 될는지요. 또 한 가지는 제수가 잔병치레로 가정이 화목치가 못하고 부부관계도 원만치 못한데 대책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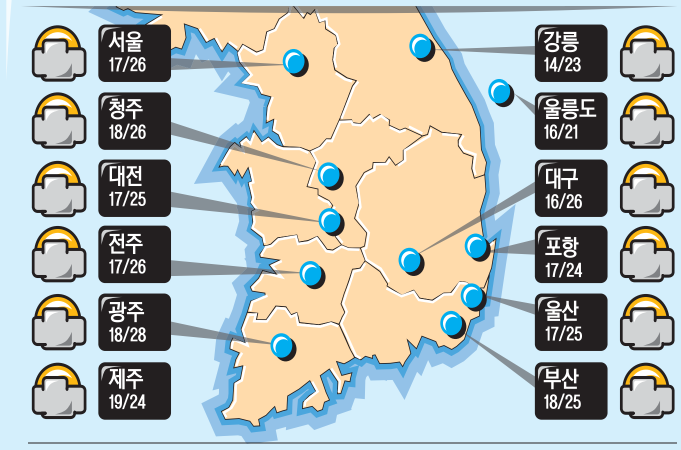
A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자신의 성정을 알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잘못되는 일의 근본원인을 내자신 안에서 찾는 습관이 필요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사에 감사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나무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형상'으로 보편적 자기주장이 바르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며 지지 않으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강직한 기상으로 독립심이 강하며 축재하는 재주가 비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속전속패(速戰速敗)하는 일도 많습니다. 태어난 생일에 갑진(甲辰)은 '푸른 용'으로 성질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여 사람과 맞서면 피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가을 초순에 목기(木氣)는 목의 기운이 노쇠하기 시작해 수분이 적어서 불에 잘 타는 성정이므로 금(金)으로 다듬어 쪼갠 다음 불씨가 있어서 태워야 본분을 다하고 사주구성과 운이 좋게 가는 것입니다. 현재 대운에서 지지와 천간을 통하여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로 음양이 같은 것)운이므로 직장생활도 좋고 사업을 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으나 미래를 보면 서 직장에 충실하라고 하고 싶군요.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좋은 일이 있는 반면 생일지에 있는 백호는 처궁(妻宮)에 흉액이 닥칠 우려가 깊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처를 고생시키거나 2016년부터는 잔병으로 고생하게 되며 부부의 인연이 변할 수가 있고 2019년 커다란 수술이 염려 되므로 돈 버는 일 보다는 처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성(財星)에서 부모 중에 한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도 염려 됩니다. 본인 건강도 중요한데 관절의 질환을 조심해야 하며 나이 들어 중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9/26 金 일출시각 06:23 일몰시각 18: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피부에 남아있는 묵은 각질은 피부 속에 영양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적절한 각질 제거는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화장품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5				
2	3		8					6
4		6		9	2			
					5	7	2	
5								3
	2	3	7					
			5	1		3		7
3					9		1	8
				8		6	9	

		9	5				1	
			2	9				5
	2	4				6	8	
		8					7	2
	7	1				5	9	
9	5					8		
	8	5				3	2	
2				5	7			
	6				8	9		

스도쿠 정답

9	7	8	6	5	1	4	3	2
2	3	1	8	4	7	9	5	6
4	5	6	3	9	2	8	7	1
6	8	9	1	3	5	7	2	4
5	4	7	9	2	8	1	6	3
1	2	3	7	6	4	5	8	9
8	9	2	5	1	6	3	4	7
3	6	5	4	7	9	2	1	8
7	1	4	2	8	3	6	9	5

7	3	9	5	8	6	2	1	4
8	1	6	2	9	4	7	3	5
5	2	4	7	1	3	6	8	9
6	4	8	9	3	5	1	7	2
3	7	1	8	4	2	5	9	6
9	5	2	6	7	1	8	4	3
1	8	5	4	6	9	3	2	7
2	9	3	1	5	7	4	6	8
4	6	7	3	2	8	9	5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9월 26일 (음 9월 3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배우자에 위험한 상상은 말라. **60년생** 만신창이 된 자존심은 회복한다. **72년생** 추진 중인 일은 기대반 우려반~. **84년생** 걱정한 일은 잘 굴러간다.

소: **49년생** 궁금한 상황은 풀린다. **61년생** 자영업자는 직원관리 잘 하라. **73년생** 공사 구별 못하면 함정에 빠진다. **85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소신 바꾸지는 말라.

호랑이: **50년생** 풍기는 분위기로 예단은 말라. **62년생** 근심은 눈이 녹듯 사라진다. **74년생** 자신이 시시하다고 자책하지 말라. **86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

토끼: **51년생** 독설은 증오만 낳는다. **63년생** 배우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에 부글부글~. **75년생** 직장인은 쉽지 않는 작업 기다린다. **87년생** 개성이 강한 사람은 조심할 것.

용: **52년생** 지나간 일은 들쑤셔놓지 말라. **64년생** 홀딱 반할 제안이 들어온다. **76년생** 가족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즐겁구나. **88년생** 입맛이 당기는 일감 발견한다.

뱀: **53년생** 동북쪽에 가면 웃을 일 생긴다. **65년생** 텅 빈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 말라. **77년생** 공직자는 동선을 깔끔하게 해야 한다. **89년생** 상사의 메시지 잘 파악할 것.

말: **42년생** 혼자보다 상생할 법 선택하라. **54년생** 자녀 설득은 적당한 때가 필요하다. **66년생** 늘 하는 이야기는 삼가라. **78년생**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워진다.

양: **43년생** 반가운 문서나 서신 받는다. **55년생** 곤란한 일은 적당히 얼버무려라. **67년생** 실패의 경험이 있기에 성공 있다. **79년생** 보살 같은 동료들이 고마울 뿐~.

원숭이: **44년생** 양보할 일은 먼저 할 것. **56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68년생** 아직 말하지 않았던 비밀은 끝까지 침묵할 것. **80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즐겁다.

닭: **45년생** 삼고초려는 응하는 게 좋다. **57년생** 실수한 일 뒷수습에 최선 다하라. **69년생** 세세한 것에 집착하면 전진하지 못한다. **81년생** 못마땅해도 상사에 맞서지 말라.

개: **46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한 하루~. **58년생** 부적절한 처신은 구설수 오른다. **70년생** 깨진 창문은 방치하지 말라. **82년생** 부모에 효도할 일이 생겨서 즐겁다.

돼지: **47년생** 사람이 몰리면 돈도 몰린다. **59년생** 갈 길이 머니까 한 눈 팔지 말라. **71년생** 벗의 낯뜨거운 부탁에 황당하다. **83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 것.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